

2) 불교계

(1) 원불교

원불교를 창도한 소태산(小太山) 박중빈(朴重彬)은 1891년 전남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에서 태어났다. 본교에서는 대종사(大宗師)로 존칭된다. 우주와 인생, 그리고 귀신의 문제에 대하여 회의를 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세 때부터 마을 뒷산에서 산신기도를 하였으나 아무런 조짐이 없었다. 그뒤 다시 6년 동안 스승을 구하여 구도하던 가운데 동학과 증산교를 유력(遊歷)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22세 때부터 독자적인 수도 공부에 뜻을 두고 정념, 사색에 들어가 자신의 존재를 잊을 정도로 고행, 입정(入靜)을 계속한 지 4년, 1916년 3월에 홀연히 지혜가 밝아져 유·불·선·증산교 등 모든 이치를 듣는 대로 깨달을 수 있었다. 교조 박중빈이 이때 대각(大覺)하였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하여 박중빈이 도통이 되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를 따르는 신도가 날로 늘어 불과 수개월 만에 4,000여 명의 교도를 얻게 되었다. 이로써 박중빈은 교단의 교주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따르는 8명의 제자를 택하여 교문의 개척에 심력을 바칠 것을 약속하고 우선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길룡리 앞 해변을 간척하는 데 착수하였다. 이것은 물질과 정신의 개혁, 생활과 합리화라는 이념의 실현일 뿐만 아니라 창교 동지의 심력 통합에 대한 첫 시련이었다.

박중빈이 처음 8명의 제자를 선택한 이유는 천지이수(天地理數)에 응하는 단원 조직의 이상에 있었다. 즉 천·지·인 방위의 이수에 부합하는 10명 일단(一團)의 조직은 단장 1명이 9명을 지도하면 이 법이 부연(敷衍)하여 마침내 한 사람의 지도자가 천하만민을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10명 일단의 조직은 천지이수에 응하는 기원 수련의 서열로도 적용되었다. 박중빈은 8명 제자로 하여금 길룡리 주위에 있는 8개 산봉우리를 나누어 관리하며 밤마다 같은 시간에 향축(香燭)과 청수를 올리면서 기원 수련을 하게 하였다. 8개의 산봉우리 중앙은 처음에 비어 있었는데 뒤에 증산 교단의 송규를 맞이하여 중앙(지)의 책임을 맡게 하였다. 이와 같이 천지이수에 의하여 조직된 9명의 단원은 새로운 정법 교단을 세워 제도중생(濟道衆生)할 것을 결사 동맹한다는 뜻에서 '사무여한(死無餘恨)'이란 표어를 내걸고 백지동맹서(白紙同盟書)에 인주가 없이 지인(指印)을 찍었는데 이것이 혈인(血印)으로 나타나는 신비가 있었다고 한다.

이 혈인 서천(誓天)에서 천명으로서 법인(法印)을 얻게 된 것이라고 믿은 박중빈은 새 시대를 제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정법불교를 창도할 목적으로 '불법연구회기성조합(佛法研究會期成組合)'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1919년에 두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전북 부안 봉래산(변산)에 들어가 수도막(石頭菴)을 짓고 기원 수련을 계속함과 동시에 정법불교의 교리를 연구하였다. 박중빈은 불법과 생활이 하나가 되는 불교가 되려면 불·유·선이 합치되는 원융불교(圓融佛敎)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생활불교의 이념으로서 '처처불상(處處佛像) 실지불공(實地佛供) 불법시생활(佛法是生活)'이라는 법언을 제창하고 이러한 불교의 실천요강으로 사은(四恩)·사요(四要)·삼학(三學)·팔조(八條)를 초안하여 혁신불교의 이념을 제시하였다.

1924년에는 전북 익산군 북일면 신흥리에 교단의 총부를 정하고 여기에 '불법연구회'라는 간판을 걸게 됨으로써 정식으로 교문이 공개되었다. 이때부터 교체의 확장과 교리의 정리에 전력하였다. 회원들은 옛장사와 약장사 등 여러 가지 근로사업으로 교단의 기금을 조성하면

서 수도와 포교에 힘을 다하였다. 교리면에서도 1938년 기본 경전인 『탈교정전』을 간행하고 기본 교리인 '일원상(一圓相)'의 진리를 포명하였다. 일제의 종교탄압은 이 교단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불법을 연구하는 불교단체라는 명목으로 근근이 교단 운영을 지속하여 1943년 교조 박중빈 대종사가 죽을 때까지 교세는 신도수 약 9,000명, 기본 자금은 20여 만 원에 달할 정도였다.

교조 박중빈의 별세와 동시에 2대 대종사로 정산 송규가 법통을 계승하였다. 그는 법통을 이어받은 2년 만에 8·15해방을 맞았다. 일제의 종교탄압에서 벗어나고 포교활동의 자유를 얻은 본교는 대종사가 창도한 교리를 정리하고 이름을 '원불교'로 고쳐 보다 발전적인 포교, 운영의 방침을 세워 교육·자선·교화의 3대 사업을 실천 목표로 하였다. 이 결과 교단 본부 주위에 남, 여 중고교와 대학 등의 교육기관을 설립하였으며, 전국에 포교 기반을 넓히고, 나아가서 해외에까지 포교의 손을 뻗쳐 1962년 송규가 죽을 때는 교인이 30만이 넘었다. 교육기관을 비롯하여 각종 산업기관 등 많은 재산을 이룩하여 한국 신흥종교에 제일의 발전상을 보였다. 대신 김대거(金大舉)가 3대 종법사를 계승하였다.

원불교는 교법의 연원을 불법에 두면서 유·도의 교법까지 융섭하는 원심(圓深)한 종교라고 한다. 즉 불의 견성(見性)과 유의 술성(率性)과 도의 양성(養性)이 충분히 갖추어진 종교라는 것이다. 이 불교야말로 재래의 불교와 같이 생활과 격리되지 않고 인간생활이 곧 불교가 될 수 있는 혁신불교(생활불교)이다. 이 불교는 종래의 불법과 같이 어느 화신불(化身佛)을 편벽되게 믿지 않고 법신불(法身佛)의 표현인 우주 만유를 모두 부처님으로 믿는다. 이것이 본교의 신조인 처처불상이다. 모든 것이 부처님이고 만사가 불법이므로 불공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것이 '사사불공'이다. 그리고 생활하는 만사가 곧 불법이므로 선법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즉 '무시선(無時禪) 무처선(無處禪)'이라는 교법이다.

이와 같이 모든 종교의 교리 불법과 생활이 일원화되고 법과 상, 이(理)와 사(事)가 원용되어 있는 최고의 진리는 하나의 둥근 모양 '원(圓)', 즉 일원상으로밖에 표시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원상은 법신불의 형상이며, 제불제성(諸佛諸聖)의 심인(心印)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우주 만법의 본원이라고 하여 이를 신앙 대상으로 한다.

이 일원상의 원리 아래에 사은, 사요의 생활신조와 삼학, 팔조의 수양요결이 교강으로 되어 있다. 삼학, 팔조의 수행에 의한 정각정행(正覺正行)으로 불법을 활용하고 사은, 사요의 신앙에 의한 지은보은(知恩報恩)으로 무아봉공(無我奉公)을 한다. 따라서 정각정행, 불법활용, 지은보은, 무아봉공은 본교의 사대교강이다. 또한 수행면에서 불의 선법, 유의 윤리(실천), 도의 수련을 논하였는데 특히 2대 종법사가 표방한 '삼동윤리(三同倫理)' 즉, 동원도리(同源道理), 동기연계(同機連契), 동척사업(同拓事業) 같은 특이한 윤리설을 세운 바도 있다. 교제의 특징이라면 종교의 시대화·대중화·생활화다. 따라서 신행 의식도 현대식으로 하고, 교단 조직도 민주주의적 방법에 의하여 종법 사직도 수위단원(首位團員)에서 선거하여 임기제로 하였다.

교단의 현황은 전국에 130여 개의 포교소가 설치되어 있고 순천지역에도 상당수의 포교소가 설치되어 있다. 본부 산하기관에는 유아원에서 대학에 이르는 교육기관과 양로원·고아원 등 자선기관이 있고, 훈련기관으로 선원이 설치되고, 사업기관으로 인쇄소·병원·약국·농원·기타 여러 가지 산업기구가 있어 막강한 재정을 보유하고 있다.

(2) 대한불교화엄종

대한불교화엄종의 본부는 인천시 신흥동 해광사이다. 본종을 창교한 한영석(韓永錫 : 법명 능해)은 18세에 출가하여 양산 통도사에서 곽법경(郭法鏡) 화상에게 득도하고 21세에 이해명(李海明) 선사에게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다고 한다. 그뒤 서울 휘문의숙을 졸업한 뒤 묘향산 보현사에서 불교고등과를 졸업하고 양주 도봉산 망월사와 강화도 전등사에서 8년 동안 불법을 닦다가 1924년 인천시 간석동에 약사암(藥師庵)을 짓고 주지가 되었다.

해방이 된 뒤 인천시 신흥동에 있는 일본인 사찰을 인수한 것이 현재의 해광사이다. 그는 인천지역에 공민학교와 기술학교 등 육영기관을 세우고 또한 불교계의 정화운동에 참여, 조계종(대처승)측에서 활약하였고, 1958년에는 대한불교조계종 경기도 총무원장으로 피선된 바 있었다. 그뒤 조계종이 비구측의 집권으로 돌아가자 1963년에는 대한불교법화종에 가입하여 중앙총무원장까지 맡았다.

그가 법화종에 가입한 것은 교리가 자신의 뜻에 맞아 가입한 것이 아니라 당시 정부에서 사찰재산의 등록을 종용하던 때여서 부득이 법화종에 가입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법화종에서 언젠가 탈퇴해야 할 그는 자신이 하나의 종단을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종단 창립계획에 따라 신라의 원효와 의상이 개종한 화엄종을 택하여 1966년 10월 대한불교화엄종이라는 교명으로 자신이 종정(宗正)이 되어 당국에 등록하였다. 본종은 원효대사를 제1대 종주로 하고 의상대사를 2대 종주로 한다.

교리는 원효와 의상의 화엄종에서 종지(宗旨)로 하였던 지관법(止觀法)과 염불 수행으로 견성성불(見性成佛)하는 대승불교의 보급을 핵심으로 한다. 본종의 창교가 전국에 알려지자 대처승이 관장하던 사찰들이 이 화엄종에 입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는 대처승이 관장하던 사찰이 조계종에서 밀려나와 태고종으로 전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계종과 태고종은 같은 연원이면서도 알력이 일어나 마땅치 않게 보였고, 화엄종은 대처승의 생활불교로 현실에 합당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불교사찰재산관리법상 유리한 점이 있었던 것도 한 이유였다. 현재 순천지역에는 몇몇 화엄종계 사찰이 있으며, 신도 역시 상당수 있다.

(3) 대한불교법화종

『나무묘법연화경(南無妙法蓮華經)』을 소의경전(所依經典)으로 하는 종단으로 고려 대각국사의 의천의 법맥을 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는 일본 불교인 일연종의 신도였던 김혜선(金慧宣)이 해방 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떠나자 지난날의 일연종 신도들을 규합하여 사찰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처음에는 ‘조선불교화엄종’이라는 이름으로 세운 것이다.

조선불교화엄종의 신도가 되었던 김갑열(金甲烈)은 1947년에 서울 성북동에 무량사를 짓고 법화사 중심의 대승불교법화회에서 탈퇴하여 1955년에 무량사를 중심으로 한 불교정각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1956년에는 법화사에서 분립된 여러 교단을 통합하여 무량사를 본부로 하는 대한불교법화종을 조직하고 종주에 김혜선, 총무원장에 이홍선(李泓宣), 수교원장에 예혜교(芮惠敎), 조직부장에 김법능(金法能) 등을 앉히고 자신은 부녀부장이 되려고 하였다. 그러나 김혜선이 종주 취임을 거절하고 얼마 안 되어 이홍선, 예혜교 등도 탈퇴해버리자 김갑열은 김법능, 한청해(韓淸海) 등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종주가 되어 종단을 유지하였다. 1960년에는 김혜선이 자기가 운영하던 법화사를 중심으로 한국불교법화종의 간판을 걸자 김갑열은 대한불교법화종을 관에 등록함으로써 이를 누르려고 하였으나 법화종계의 신도들이 김혜선측에 몰림으로써 김갑열측의 교세는 위축되는 경향이였다. 그런데 1962년 8월에 정부의 불교재산관리법 시행령이 발효되자, 당시 조계종에서 비구승과의 마찰로 종단 등록에 가

입하지 못하고 있던 대처승 소유 군소 사찰들이 재산을 보유하기 위한 방략으로 대한불교법화종에 귀속하는 예가 많았다. 한때는 200여의 말사(末寺)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모여든 말사들은 실상 본부에서 주장하는 교리와 상합되지 않았으므로 후에 기회만 있으면 탈종하였다. 1966년 한청해가 탈퇴하여 화엄종으로 등록하자 많은 사찰들이 한청해를 따르기도 하였으며, 1970년에는 대부분의 말사들이 태고종으로 돌아감으로써 현재의 교세는 크게 위축되어 있다.

본교는 법화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석가모니불을 신봉하고 『다무묘법연화경』을 염송하는 현밀쌍수(顯密雙修)의 교리로 즉신성불(卽身成佛)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법화사상을 개현한 대각국사의 사상을 다시 선양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일연종의 교리를 수정하여 한국적인 불교 형태로 변혁한 것이다. 따라서 본교는 일연종에서 본존(本尊)으로 신봉하는 만다라(曼陀羅)와 『다무묘법연화경』을 염송하면서 석가모니불까지도 봉안하고 있다. 일연종에서 일본말로 염송하던 『다무묘법연화경』을 한국말로 고쳐 일반 불경과 함께 염불 수행을 하고 있다. 지금은 소속 사찰의 상당수가 화엄종과 태고종으로 전입하였고, 신도수 역시 대폭 감축된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에는 현재 죽도봉 아래에 있는 봉화사가 대한불교법화종 소속 사찰이다. 이 봉화사가 언제, 누구에 의해 창건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현재 이 봉화사에는 교인 1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